지구 되살리는 일, 다 함께 상생하는 길

지금 이 세계戒

⑧ 두 번째 화살을 맞았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2026년 8월 26일 오전 8시 37분, 인류는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맞았다. 이날에 대해서는 이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두 알 것이다. 네팔-티베트의 국경 지대의 빙하가 크게 붕괴돼 산사태를 비롯해 빙하 쓰나미가 발생, 이로 인해 약 500만 톤의 물과 토석류가 히말라야 아래로 쏟아져 내려와 수많은 인명 피해와 참상을 남겼다.

처음 뉴스를 접했을 때는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다. 자연에서 일어날 수 없는 모습에, 이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벌어진 일인가 싶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는 네팔에서 실제로 일어난 현실이었고, 이렇게 끔찍한 비극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지 슬픔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런데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번 히말라야 빙하 쓰나미와 홍수에 대해 인간은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미 12년 전인 2014년 8월 29일 EBS 교육방송에서 제작한 '하나뿐인 지구-히말라야 대재앙, 빙하 쓰나미' 편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염려와 대책에 관해 상세하게 다뤘다.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는 올해 7월 2일 재방송과 유튜브 재업로드를 통해 지구 보존의 필요성과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그럼에도 인간은 그 오만함에 사로잡혀 우리의 삶에 관계되지 않은 것이라 여기며 아무렇지 않게 지내다가 결국 인류 스스로 삶의 터전에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필자는 이와 비슷한 재앙을 앞서 2017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에 경험했다. 이날은 일본의 동북부(토후쿠)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9.1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한 날이다. 그리고 잠시 후 시속 700㎞로 높이 40m의 말도 안 되는 쓰나미가 밀려와 이 지역을 쓸고 가버렸고, 약 2만 명의 희생자를 남겼다. 이 순간을 전하던 일본 NHK 아나운서의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말은 지금도 생생하다. 이때 인류는 자연에 대해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인간이 통제하려 해서도 안 된다는 깊은 가르침을 얻으며 참회했었다.

그러나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약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때 몸소 겪은 상처와 교훈을 까맣게 잊고 이번에는 인간의 손으로 더 큰 재앙을 만들고 만 것이다. 언뜻 보면 동일본대지진이나 네팔 홍수가 자연재해로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지구에서 인간만 편하면 된다는 오만함으로 살아온 결과가 불러온 재앙이며 '인재(人災)'다.

〈상윳다 니까야〉의 '살라타경'에서 부처님은 중생이 살아가며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으로 "비구들이여, 마치 사람이 첫 번째 화살에 맞고 다시 두 번째 화살에도 맞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신다. 누구나 살아가며 처음 접하는 여러 상황과 인연 속에서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다. 다만 그런 일을 경험하고 괴로움을 겪었을 때 그저 그 순간만을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순간의 괴로움을 교훈으로 삼아 다시 같은 실수를 스스로 저지르지 않도록 성찰하고 정진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다시 두 번째 화살에도 맞는 것과 같다"는 말씀과 같이 인간(중생)은 같은 실수를 다시금 저지른다. 그래서 계속 윤회를 거듭하고 그 잘못은 마치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핑계를 대고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첫 번째 화살은 세상과 인연이 우리에게 쏜 것이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쏜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화살을 맞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쏜 두 번째 화살에 맞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맞았으니 어쩔 수 없지'라며 살아가야 할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지금 이 세계戒' 칼럼의 바로 이전 주제가 '불이(不二)야'였다. 지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칼럼을 쓰자마자 이번 참혹한 일이 다시금 벌어진 것에 필자는 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하다. 하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고 전해줘야 한다. 우리의 신구의(身口意) 삼업을 편하게 하려고 지금처럼 살아왔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 **네팔 대홍수, 인간 오만함이 빚은 인재**
> **삼업 편하게 살아와 맞은 두 번째 화살**
>
> **다시금 불러온 재앙, 우리가 복구해야**
> **남 일 아닌 우리의 다가올 미래일 수도**
>
> **지구 살리고 인연 보살피는 실천 나서야**
> **내일로 미루면 세 번째 화살 맞게 될 것**

그렇기에 이제 그 신구의 삼업으로 다시금 되돌려야 한다. 우리의 몸만을 편하기 위해 살기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구를 위한 일을 몸소 실천해야 한다. 말로만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서로 간의 약속으로 여겨야 한다. '나도 해 볼까'라는 생각은 이미 늦었기에, 지금 생각날 때 바로 실천하고 주위에 전해야 한다.

업은 그것을 행한 당사자에게 언젠가 반드시 되돌아온다. 이를 '업과', '업보'라고 부르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왜 우리는 업보를 피하려고만 할까? 피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으면 될 일이다. 나쁜 업을 짓지 않으면 그에 따르는 업보 또한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노력과 수행, 정진으로 그 업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또 다음에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면 그 업의 힘은 점차 약해지고 사라져 마침내 우리는 업보를 두려워할 필요조차 없어지게 된다.

"악행은 자신이 지은 것이고, 자신에 의해 더러워진다. 악행을 짓지 않는 것도 자신이며, 자신에 의해 깨끗해진다. 청정과 부정은 각자에게 달려 있으니, 남이 남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법구경〉 165게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다시금 불러온 이 재앙은 우리가 복구하고 우리가 되살려야 한다. 더 이상 다른 누군가를 탓하거나 지구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이다. 다른 누가 어찌 의지처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가르침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의지처이고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가는 중생이다. 스스로 중생임을 인정하고 부족한 존재이기에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실천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와 전혀 무관한 나라의 일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지금은 그곳이지만, 가까운 시일에 이곳으로 옮겨올 일이다. "이것이 있기에 그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그것도 사라진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가장 절실히 느껴지는 순간이다. 그곳 네팔의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일상을 되찾고 보금자리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히말라야의 그 땅이 지구를 잘 덮어줘야 한다. 그래서 이곳 대한민국의 우리도 마음 놓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서 지구에 감사하며 오늘을 영위할 수 있다.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의 지구 속에 살아간다.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그 전체 속에 다시 하나가 존재한다는 '일즉일체다즉일(一卽一切多卽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나의 행동이 내일의 우리에게 전해져 삶을 이룰 것이기에,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오늘 나의 행동을 잘 다스리고 책임져야 한다. 아주 작은 한 존재이지만, 한 명 한 명이 모여야 우리가 되고, 우리가 있어야 지구를 다시 되살릴 수 있다. 지구는 항상 우리를 돌봐주고 아낌없이 베풀어줬다. 그러나 정작 그런 보살핌을 받았던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영원토록 우리의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이런 일을 불러온 것이다.

'자비(慈悲)'와 '화합(和合)'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다. 자비로운 마음과 행동이 있을 때 상대와 화합을 하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이제 지구가 우리에게 그랬듯 우리가 지구를 자비롭게 대해주자. 아파서 상처입은 곳을 우리가 치료해 주면 그 상처가 아물며 다름 아닌 우리에게 터전을 제공해 줄 것이다. 잘려나간 곳을 우리가 채워주고 심어주면 다름 아닌 우리에게 풍요로운 자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더러워진 곳을 정화하고 깨끗이 사용하면 다름 아닌 우리에게 생명의 감로수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처럼 지구를 되살리고 보살펴주면 지구는 다름 아닌 우리와 화합하여, 우리가 보다 편안하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지구는 우리의 관세음보살이며 정토이다. 다른 누군가를 관세음보살로 찾을 것이 아니라, 항상 곁에 있던 눈앞의 관세음보살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서쪽 어딘가의 정토를 꿈꿀 것이 아니라, 지금 발 딛고 있는 이 땅이 그토록 찾던 정토임을 깨달아 청정한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미 두 번째 화살은 맞았다. 이제 빨리 화살을 빼고 상처를 치료해야 살 수 있다. "땅에서 넘어진 자, 그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한다(因地而倒 因地而起)"는 보조 지눌 스님의 가르침과 같이, 지구에서 넘어진 우리와 인연들을 다시 그곳에서 일으켜 세워 함께 살아가야 한다. 내일로 미루는 순간 우리는 세 번째 화살에 맞게 될 것이다.



법장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 일

종도 일동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6길 76-9, 일붕선원 1층
Tel : 02-991-8175, 8904 / Fax : 02-991-8176
www.ilbung.org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포교사 일동

포교가 곧 수행
수행이 곧 포교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5층
전화 02)927-0588 / 팩스 02)927-5390